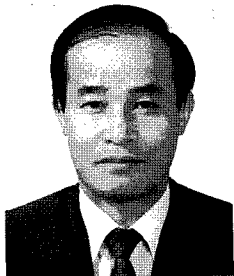


일체감을 보이자



오 경 록
천호부회장

우리가 이웃 일본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갖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감정은 우월감의 위치에서 볼 수 없는 입장이 되면서 부터 나오게 된 반대급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문자와 문명을 전해주고 가르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엔가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앞서고 침략하는 시기부터 미움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다. 이렇게 쌓여진 미움의 감정은 우리가 일본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는한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근면, 검소 등 개인생활 습관에서 부터 정치적인 것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의 일본이 있게 한 원동력은 일체감에 있다고 본다. 바로 이 일체감의 국민성이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하고 내일의 일본을 보증하고 있는 국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한명 한명을 보면 무엇이 될까 싶지만 여럿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결과를 보면 생각밖의 일이 이루어는 것을 볼 때 이는 일체감에서 나오는 힘의 위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주변을 보자. 개인 개인이 모두 월등하고 여러면에서 일본인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모여서 이루어내는 일체감이 부족하다. 개개인이 우수하다 보니 합쳐서 하는 일 자체가 거북스럽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다.

그러나 사회발전이 거듭될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는 일의 성사가 어렵게 되는 시대인 것이다. 혼자



서 만물박사, 독불장군이 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영웅이 없는 시대라는 말까지 있지 않은가.

특히 농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본사고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좌우되어 왔고, 그에 따른 지혜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지역마다, 시기마다 자기주장과 이론을 앞세우게 되며 다른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운 습관이 생활화되어 왔기에 웬만하게 자신과 관련되어 위기 의식을 느끼기 전에는 개개인들의 일체감을 유도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의식이란 발앞에 떨어지기 전에는 남의 일로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산업구조 조정의 마지막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많은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개방시기의 대응정책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만이 풍성하더니 요사이는 모두 해결된 듯이 잠잠한 것이다.

현실의 당면과제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오는 일이 아니므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 서로 해결해 주겠지 하고 미루다 보면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되고 해결방안은 세월의 망각속에 묻혀버리고 이제 발앞에 불이 떨어지면 또다시 호떡집에 불이 난것 처럼 요란스러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름따라 되어가는 대로 되어도 좋다」는 사고는 양계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생업을 지금보다 좋은 환경으로 후손에 이어주고 생존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개혁을 한가지씩 거론하여 진행 평가회라도 갖고 다시 한번 모두의 시선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일체감있는 행동이 재삼 요구되는 시기인 것으로 본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신선과 같은 마음으로 구름따라 되어가는 대로 되어도 좋다는 사고가 아니고 지금의 일이 생업이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쓰비시 상사의 창업주인 이와사키 야타로가 평소 사원들에게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조수(操守: 신념을 굳게 지키며 결심한 일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를 중요시 해야 한다”는 말을 재삼 음미하면서 우리 산업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하여 신념과 결심을 일체감 있는 소리로 응축시켜 많은 것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일체감있는 행동통일의 의지를 재삼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일체감을 갖는 것은 실행방향의 통일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